

화장색 이미지평가와 선호도 차이 (제1보) -지각자의 성별을 중심으로-

이 연 희[†]

진주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A Differences in Preference and Evaluation on the Image of Make-up (Part I) -Focused on Perceiver's Genders-

Yon-Hee Lee[†]

Dept. of Beauty Desig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2005. 6. 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make-up color application system, based of Korean's skin tone and the preference in make-up colo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of beauty in universiti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previous studies, the analyses of sale's rate of hue-cosmetics, the analytic experiment of color of cosmetics by using Spectrum Color Analyzer and other experimental researches. This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of three preliminary researches, shows the result of evaluation from perceivers which has been come out from the experiment of having one model in her twenties being changed with twenty-two different conditions of make-up. Here follows the result of the research. Firstly, there was difference on perceiving images in terms of the gender of perceivers and especially male-group tend to have clearly perceived the gap between elegance-greyish purple, orange-natural, red-classic on monochrome make-up and contrast make-up. Secondly, in terms of lip-colors, salmon pink and pink was regarded positively to both female and male subjects and to male subjects, greyish purple was thought to be better on darker skin-tone and to female subjects, better on lighter skin-tone. Thirdly, on image make-up, romantic gives intelligent image regardless of skin-tone and gender, especially gives more positive looks to male subjects. Natural and classic elements were perceived more positively on darker skin-tone and had bigger perceiving gap in female subjects. Fourthly, in preference rate, male subjects normally preferred the look with make-up than female subjects did and salmon pink and pink lip color was preferred on the darker skin-tone.

Key words: Lip-colors, Image make-up, Perceiver's gender, Make-up color application system; 입술화장, 이미지화장, 지각자의 성,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

I. 서 론

화장과 의복은 대표적인 외모장식 수단이지만 화

장이 신체의 형과 색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킴에 반하여, 의복이나 장신구는 형태와 색을 갖춘 부가물을 신체에 걸치는 간접적 장식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大坊郁夫(1996)는 화장은 가장 직접적인 미적 표현방법으로서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지침이 된다고 하였으며, Jouhar and Graham(1985)은 얼굴화장은 색

[†]Corresponding author

E-mail: yh8170@hanmail.net

2004학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02-G00025).

체로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외모를 변화시키고 싶은 심리적인 충동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라고 함으로써 얼굴화장과 색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화장색과 이미지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얼굴화장은 외모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상을 유지해 가는 수단이며, 눈과 입술화장은 매력적인 인상을 만드는 중심이고, 특히 화장색이 얼굴이미지 형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결과를 도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화장색 의하여 다르게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용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론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메이크업 전공에서의 체계적인 색채교육을 위한 자료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교육용 자료개발을 위하여 피험자를 의도표집하여, 지각자 성별이 20대 여성의 얼굴화장 이미지지각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첫째 색채화장 이미지지각의 요인구조를 밝히고, 둘째 모델의 피부톤 및 입술화장색과 이미지메이크업이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평가되는지 파악하며, 셋째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피부톤 및 입술색과 이미지메이크업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의 내용분석, 화장품 시장 판매율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분광측색계에 의한 화장품색 분석 실험, 자극물에 대한 설문지 작성에 의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화장색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차이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제2보>에서 제시될 지각자의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화장색 평가결과와 함께 메이크업의 색채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분야의 후속연구에 기초 자료 제공과 체계적인 미용교육 방법론 개발의 대안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색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화장의 정의, 대인지각,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색 이미지 지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화장의 정의

화장(化粧)은 영어의 메이크업(make-up), 불어의

마꾸아쥬(maquillage)에 해당되지만, 화장의 가장 일반적인 외래어는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생활용어로 사용되는 메이크업은 얼굴화장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화장으로 통칭되고 있다. 春山行夫(1992)는 화장이란 고대부터 얼굴에 색을 칠하는 것이 그 중심이며, 기본적인 뜻은 화장품을 사용해서 여성의 매력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石田香里(1995)는 화장의 범위를 목욕, 세안, 이 닦기 등의 일상적인 위생행위와 수염 깎기, 머리손질과 같은 이·미용행위, 그리고 피부 관리,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문신, 발치, 식·탈모 등에 이르는 신체 관리와 장식에 관한 모든 행위라고 함으로써 메이크업이 화장의 한 영역임을 시사하였고, 鈴木恒男(1996), 柯田隆博 외(1996) 등은 메이크업과 화장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한편, Hayes-Steinert(1978)는 얼굴 기초화장은 피부 관리로, 색조화장은 메이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식적 기능을 갖는 것이 메이크업임을 암시하고, Gröning(1997)은 메이크업이 신체 장식의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Brain(1979)도 Gröning과 같은 시각으로 문신, 상흔, 변형, 페인팅 등을 신체 장식의 각 요소들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화장의 개념은 국가와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문헌들에 근거한다면, 화장의 넓은 의미는 목욕, 세안, 이 닦기 등의 일상적인 위생행위와 수염 깎기, 머리손질과 같은 이·미용행위, 그리고 피부 관리,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문신, 발치, 식·탈모 등 신체 관리와 장식을 위한 모든 행위이며, 좁은 의미는 장식적 측면이 강조된 얼굴화장인 beauty make-up을 의미하며, 오늘날 뷰티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로 정착,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장의 협의적 정의로서의 얼굴화장을 메이크업으로 하며, 이 때 메이크업은 화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대인지각 이론

대인지각은 타인의 신체적, 언어적 표현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자극인 타인의 심리적 내용을 지각하는 것이며(정양은, 1981), 이 때 지각은 지각자의 활동적인 관여를 요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개인의 감각 체계, 과거경험, 동기가 되는 상황 등은 자극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Hastorf et al., 1970). 따

라서 지각과정은 형, 색, 크기와 같은 표면에서 두드러진 물체의 속성을 가진 대상이 눈을 통하여 뇌로 전달됨으로써 일으키는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반응의 결과는 지각자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인지각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태주의 이론, 내현성격 이론, 두드러진 단서 등의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상형성 연구에서 전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주의 이론은(강혜원, 1995) Asch의 초두효과, 중심특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초두효과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한규석, 1995), 중심특질이란 중심이 되는 특질은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고, 이 때 주변특질은 중심특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최종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강혜원, 1995)이라고 할 수 있다.

내현성격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은 내재적 성격이라고도 하며, 이 이론은 각자가 갖는 성격 판단의 기초가 되는 틀로서,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성격을 판단할 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방향성을 말한다(정양은, 1981). 일반적으로 같은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거나 유사한 내현성격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두드러진 단서(salient cue)는 특출성이라고 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른 사람 또는 상황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나 상황으로서 논리적으로는 대부분의 사회판단과 무관할지라도 일상에서는 주목받는 단서이기 때문에 지각대상에 대한 지각자의 판단에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다(Fiske & Taylor, 1991). 형태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지각원리에 따르면, 두드러진 단서란 단조로운 배경에서의 밝음, 스포트라이트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의 선명함,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의 복잡성 등과 같은 특이함이 조건이 작용하며, 이와 같이 두드러진 단서로서 형상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주시 받게 됨으로서 인상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McArthur & Ginsberg, 1981; McArthur & Post, 1977).

대인지각이론을 의류학에 적용한 국내 연구는 1980년대 초 시작,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형태주의 이론, 내현성격이론, 두드러진 단서 등의 이론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도출시켰으며, 이들 선행연구

구들은 메이크업과 헤어미용의 연구방법론에서도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인지각에서 얼굴은 중심특질로 작용하며, 이 때 얼굴에서의 화장색은 두드러진 단서가 되고, 화장한 얼굴의 이미지평가자인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내현성격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에 의하여 자극물을 설계하였는데, 이는 의류학 분야 선행연구와 본 연구자의 화장색 이미지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색 이미지평가의 선행연구

지각자 변인에 따른 화장과 인상형성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Hamid(1972)는 지각자의 성별을 변인으로 하여 화장과 안경착용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 명의 모델에게 화장 및 안경착용 유·무 등의 조건을 적용한 4종류의 자극물로 조작시킨 후, 남·여 피험자들에게 이에 대한 매력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평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각 자극물에 대한 지각 정도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그 차이를 더 크게 보였다. Graham and Jouhar(1981)는 화장과 머리손질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에서, 남자는 화장, 여자는 머리손질에 대하여 더 뚜렷한 지각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남자들은 화장을 한 여성 얼굴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더 사회적이며, 재미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고 평가한 반면, 여자는 머리손질을 한 자극물이 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함으로써, 지각자의 성별이 여성 얼굴이미지 평가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이연희(2001)는 20대 여성 한 명의 얼굴을 12가지의 화장색으로 변화시킨 자극물을 제작하여,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 지각실험을 통하여, 지각자의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화장색 이미지평가 차이를 더 크게 나타내었음을 규명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20대 모델 한 명의 얼굴을 22가지의 화장조건에 따라 조작한 22장의 얼굴 사진 자극물과 이에 응답할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3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대와 40대 여성 모델 선정에 관한 것으로, 그 절차는 20대와 40대 모델 희망자 중 각 10명을 선정, 이들의 얼굴 정면사진을 A4 캔트지에 20대 1장, 40대 1장으로 배열한 후, 교수, 학생 각각 25명씩 총 50명의 판단 집단에게 표준형에 가장 가까운 얼굴을 1에서 3의 순위까지 기입하게 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얼굴로 결정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설문지 제작을 위한 것이었다. 3차 예비조사는 20대와 40대 모델 각 한 명에게 동일한 화장조건을 적용시킨 자극물 각 6장을 제작하여 이에 대한 지각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모델의 연령에 따라 화장색 이미지와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3차 예비조사 결과, 40대 모델의 경우 화장색 조건이 달라도 이미지와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20대에 비하여 극히 낮았으므로, 본 조사는 20대 모델 한 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각 자극물에 사용된 화장색은 <표 1>에서 면셀기호로 제시하였으며, 화장색 측정은 분광측색계 Spectrophotometer CM-2600d를 사용하였다. 화장품색 선정은 국내 색조화장품 시장의 제품판매율에 근거하였다. 즉, 국내 대형 백화점과 화장품 전문 업체 6곳의 색조 화장품 관련 마케팅 자료를 분석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브랜드 4개사의 판매율에 따라 립스틱 20개, 아이섀도 40개, 화운데이션 8개, 파우

더 8개를 선정한 후, 이들 중 판매율이 공통적으로 높고, 피부톤이 화장색 효과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른 얼굴이미지도 달라진다는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이론(Fujii, 1991; Jackson, 1984; Spillane & Sherlock, 1995)에 부합되며, 본 실험을 위한 각 자극물 제작에 적합한 화운데이션과 파우더 각 2, 입술색 6, 아이섀도 15, 볼 화장 2 등 총 27가지의 색을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이미지메이크업을 위한 배색은 일본 색채연구소와 국내 아이 알 아이 연구소의 색채이미지 관련 자료와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였다. 총 22장의 각 자극물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묻는 질문지는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7점 의미분척도의 34개 항목사 쌍과 5점 척도의 선호도 1문항,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인의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4문항을 포함한 총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연구목적에 맞게 의도 표집(purposive sampling)된 집단인데, 이는 본 연구가 교육용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 개발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대상자들은 전국을 수도권, 광역시, 지방도시 등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해당 지역을 고르게 선정한 후, 색에 대한 전문 지식과 색채 활용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표 1> 각 자극물에 사용된 화장색의 면셀기호

	이미지메이크업		입술화장	
	밝은 피부톤	어두운 피부톤	밝은 피부톤	어두운 피부톤
	화운데이션: 3.1YR 7.1/4.1 파우더: 1.2YR 8.3/3.0	화운데이션: 5.4YR 6.3/4.9 파우더: 6.1YR 8.8/2.0	화운데이션: 3.1YR 7.1/4.1 파우더: 1.2YR 8.3/3.0	화운데이션: 5.4YR 6.3/4.9 파우더: 6.1YR 8.8/2.0
본 얼굴	피부톤: 6.0YR 7.2/2.6 입술: 4.8R 5.6/6.7		세면핑크	4.1R 6.0/7.6
로맨틱	입술: 4.1R 6.0/7.6 눈: 7.4P 7.2/4.2, 0.4Y 7.3/5.8, 4.5RP 6.2/9.5 볼: 7.6RP 6.9/7.7		그레이쉬 퍼플	6.1R 5.3/3.2
엘레강스	입술: 6.1R 5.3/3.2 눈: 9.0YR 8.9/0.7, 8.7RP 6.5/5.9, 4.2PB 7.2/4.8 볼: 7.6RP 6.9/7.7		핑크	5.3RP 6.5/9.9
쿨	입술: 5.3RP 6.5/9.9 눈: 2.8Y 9.1/9.3, 5.7PB 7.1/5.8, 5.6PB 4.1/3.5 볼: 7.6RP 6.9/7.7		주황	8.4R 4.4/7.3
내추럴	입술: 8.4R 4.4/7.3 눈: 2.9G 6.7/5.3, 9.5R 6.4/6.4, 5.6YR 4.2/1.6 볼: 6.6R 6.6/7.1		빨강	5.1R 3.2/7.0
클래식	입술: 5.1R 3.2/7.0 눈: 6.0YR 8.2/2.6, 5.6YR 5.8/4.3, 2.7YR 3.5/2.0 볼: 6.6R 6.6/7.1		미디엄 브라운	3.9R 4.2/8.5

간주되는 미용, 패션, 디자인 관련 종사자와 전공자들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표집되었다. 전문 조사원 12명은 응답자들에게 자극물 한 개에 대하여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12월 한 달간 이었다. 전체적으로 1,587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1,497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 산출,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지각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의도표집에 의한 지각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화장색 요인분석

화장색의 이미지 요인파악을 위하여, 34개의 7점 의미미분 척도 형용사 쌍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친숙성, 지성, 건강, 호감도도, 전통성, 젊음 등의 6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화장색 이미지평가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화장색 이미지평가는 입술색 자극물 12개 이미지 메이크업 자극물 10개 등 총 22개였으며, 이에 대한 남자 743명, 여자 754명, 총 1,497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1) 피부톤에 따른 입술색 이미지 평가

(1) 밝은 피부톤에서의 입술색 이미지평가

밝은 피부톤은 화운데이션 3.1YR 7.1/4.1, 파우더 1.2YR 8.3/3.0로 조절하였고, 동일한 피부톤에 새먼 핑크(4.1R 6.0/7.6), 그레이쉬퍼플(6.1R 5.3/3.2), 핑크(5.3RP 6.5/9.9), 주황(8.4R 4.4/7.3), 빨강(5.1R 3.2/7.0), 미디엄브라운(3.9R 4.2/8.5) 등, 6가지 입술색을 각각 적용시켰다. 입술색 선정 근거는 측정도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밝은 피부톤의 입술색과 성별에 따른 이미지각자의 상호작용효과 파악을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요인별 입술색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입술색과 각 요인에 대한 성별 이미지각차이는 Duncan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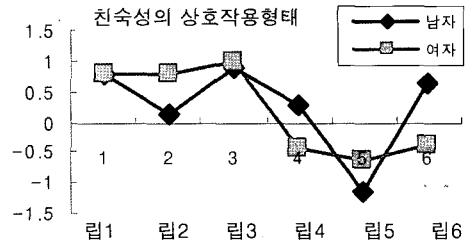
		N	%			N	%
성 별	남	783	49.75	연 령	20대	794	50.44
	여	791	50.25		30/40대	780	49.56
거주지	수도권	528	33.55	직 업	학 생	308	19.58
	광역시	509	32.34		전문직	404	25.68
	기타지방	537	34.12		사무직	354	22.50
계		1574			서비스직	273	17.36
					기 타	234	14.88
				100.00			

<표 3> 화장색의 이미지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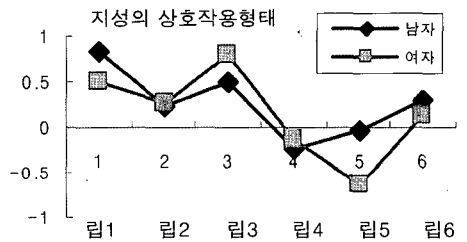
화장색 요인	형용사	고유치	전체변량 비율(%)	공통변량 비율(%)	신뢰도
친숙성	자연스러운-어색한, 친근한-생소한 등 9문항	5.271	17.002	28.097	.8923
지 성	지성적인-감성적인, 고상한-고상하지 않은 등 5문항	3.562	11.491	18.990	.8445
건 강	건강한-아픈, 밝은-어두운, 즐거운-우울한 등 7문항	3.455	11.145	18.418	.8338
호감도	매력 있는-매력 없는, 관능적인-관능적이지 않은 등 4문항	2.450	7.903	13.060	.7132
전통성	한국적인-이국적인, 고전적인-현대적인 등 3문항	2.057	6.635	10.965	.6715
젊 음	어려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귀여운-성숙한 등 3문항	1.964	6.336	10.471	.6700

주 효과는 성별의 호감도와 젊음요인에서, 입술색에서는 6개 요인 모두 유의한 차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평균에서 남자는 지성, 건강, 호감도, 전통성 요인에서 여자보다 그 값이 높아 같은 자극물에 대하여 남자가 더 지성적이고 건강하며, 호감있고 전통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밝은 피부톤의 요인별 입술색 이미지평가에서, 친숙성은 남녀 모두 새면핑크와 핑크를, 그리고 여자들은 그레이쉬퍼플도 친숙하다고 하였으며, 새면핑크와 핑크는 두 집단에서 지성적이고 건강하며, 젊게 평가되었다. 호감도 요인에서 핑크와 미디엄브라운이 남녀 모두에게, 새면핑크는 남자, 주황은 여자에게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전통성 요인에서 남자는 빨강색 입술을 전통적이라고 하였으나, 여자는 그레이쉬퍼플, 주황, 빨강, 미디엄브라운을 전통적인 입술로 지각함으로써, 성별간 차이가 뚜렷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밝은 피부톤에서는 새면핑크, 핑크 등의 연한톤 입술 화장색이 다른 색조에 비하여 더 친숙하고, 지성적이며, 건강하고, 호감가며, 젊게 지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숙성, 지성, 호감도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1>-<그림 3>이며, 각 그림에서 립1은 새면핑크, 립2는 그레이쉬퍼플, 립3은 핑크, 립4는 주황, 립5는 빨강, 립6은 미디엄브라운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남녀 모두 핑크색 입술을 가장 친숙하다고 하였으며, 새면핑크도 친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레

이쉬퍼플과 주황, 그리고 미디엄브라운에 대한 평가에서 성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그레이쉬퍼플은 여자 집단에서, 주황과 빨강은 남자 집단에서 더 친숙하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성의 상호작용형태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그레이쉬퍼플, 주황, 미디엄브라운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새면핑크, 핑크, 빨강은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그림 1> 친숙성의 지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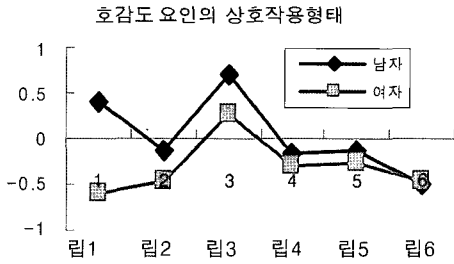


<그림 2> 지성의 지각 차이

<표 4> 성별 및 밝은 피부톤에 따른 입술색 이미지평가

	df	친숙성		지성		건강		호감도		전통성		젊음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주 효과	성 별(A)	1	.225	1.345	1.353	9.091**	.415	16.575**						
	입술색(B)	5	55.488**	16.533**	44.047**	8.711**	9.912**	26.210**						
2원 상호작용효과	A×B	5	3.187**	2.345*	1.582	3.288**	1.543	1.199						
변인		N	M	M	M	M	M	M	M	M	M	M	M	
성 별	남 자	205	.20	.26	.24	.02	-.06	.16						
	여 자	200	.26	.18	.16	-.24	-.12	-.17						
입술색	새면핑크	33,32	.78 ^a	.78 ^a	.83 ^a	.50 ^{ab}	.85 ^a	.93 ^a	.41 ^a	-.60 ^c	-.42 ^b	-.51 ^b	.94 ^a	.42 ^a
	그레이쉬퍼플	38,33	.66	1.01 ^a	.25 ^{bc}	.27 ^{bc}	-.53 ^c	-.97 ^d	-.14 ^b	-.47 ^{bc}	.03 ^b	.28 ^a	.54 ^b	.46 ^a
	핑크	35,37	.91 ^a	1.03 ^a	.50 ^{ab}	.79 ^a	.95 ^a	.93 ^a	.71 ^a	.28 ^a	-.37 ^b	-.70 ^b	.15 ^c	-.15 ^b
	주 황	36,34	-.30 ^c	-.42 ^b	-.23 ^d	-.14 ^c	.26 ^b	.02 ^b	-.18 ^b	-.03 ^{ab}	.01 ^b	.01 ^a	-.07 ^c	-.71 ^{cd}
	빨 강	30,30	-1.13 ^d	-.64 ^b	-.04 ^{cd}	-.62 ^d	.27 ^b	.58 ^a	-.13 ^b	-.25 ^{bc}	.49 ^a	.08 ^a	-.70 ^d	-.79 ^d
	미디엄브라운	33,34	.14 ^{ba}	-.38 ^b	.29 ^{bc}	.13 ^{bc}	-.31 ^c	-.52 ^c	-.49 ^b	-.46 ^{bc}	-.05 ^b	.15 ^a	.05 ^c	-.31 ^{bc}

*p<.05, **p<.01 a, b, c, d : Duncan 검정



<그림 3> 호감도 요인의 지각 차이

즉, 남자는 핑크색 입술을 가장 지성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자는 새면핑크를 가장 지성적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빨강은 여자들에게 가장 지성적이지 않다고 하였으나, 남자들은 주황색 입술보다 빨강을 더 지성적으로 평가하여 성별간 차이가 다른 색에 비하여 더 뚜렷했다. <그림 3> 호감도 요인의 상호작용형태에서는 새면핑크 입술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가 가장 컸다. 즉, 남자들은 새면핑크 입술을 비교적 호감도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자들은 가장 호감가지 않는다고 평가하여, 친숙성과 지성 요인에서의 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 어두운 피부톤에서의 입술색 이미지평가

어두운 피부톤(화운테이션 5.4YR 6.3/4.9 파우더 6.1YR 8.8/2.0)에서의 입술색과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 파악을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요인별 입술회화색 지각의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입술색과 각 요인에 대한 남녀별 이미지 지각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한 Duncan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 효과는 성별의 건강, 호감도, 젊음 요인에서, 입술색에서는 6개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평균에서 남자는 지성 요인을 제외한 5개의 요인에서 여자보다 그 값이 높아 같은 자극물에 대하여 남자가 더 친숙하고 건강하며, 호감도 있고, 전통적이며, 젊게 평가하였다.

<표 5> 어두운 피부톤과 입술색에 대한 요인별 평가에서, 친숙성에서 남녀 모두 그레이쉬퍼플을 친숙하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남자는 주황과 미디엄브라운색 입술도 친숙하다고 함으로써 성별간의 지각 차이가 비교적 컸다. 지성요인에서는 남녀 모두 그레이쉬퍼플, 핑크색을 지성적이라고 하였으며, 남자들은 새면핑크와 미디엄브라운, 여자는 빨강색을 지성적으로 평가하여 성별간 차이가 다소 있었다. 건강요인에서는 남녀 모두 빨강색 입술을 건강하다고 하였다. 호감도 요인에서 그레이쉬퍼플과 빨강이 성별에 상관없이 호감도있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남자는 어두운 피부톤에서의 그레이쉬퍼플과 미디엄브라운 입술색도 호감있게 평가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지각 차가 있었다. 전통성 요인에서 주황색 입술이 전통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젊음 요인에서는 남녀 모두 주황색을,

<표 5> 성별 및 어두운 피부톤에 따른 입술색 이미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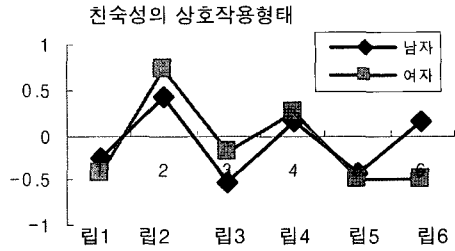
주 효과	성 별(A) 입술색(B)	df	친숙성	지성	건강	호감도	전통성	젊음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주 효과	성 별(A)	1	.055	.014	15.971**	6.800**	1.539	5.007*						
	입술색(B)	5	17.154**	4.621**	20.357**	6.481**	20.983**	10.865**						
2원 상호작용효과	A×B	5	3.420**	1.382	2.967*	2.663*	2.105	2.990*						
변인		N	M	M	M	M	M	M						
성 별	남 자	211	-.10	-.08	-.27	-.08	.25	.01						
	여 자	217	-.11	-.08	-.61	-.33	.14	-.17						
입술색		N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새면핑크	36,35	-.27 ^b	-.44 ^c	-.01 ^{ab}	-.15 ^b	-.65 ^c	-.67 ^{bc}	-.15 ^b	-.53 ^b	-.06 ^d	-.11 ^c	-.07 ^{bc}	-.20 ^b
	그레이쉬퍼플	33,37	.41 ^a	.73 ^a	.12 ^a	.34 ^a	-.16 ^b	-1.03 ^c	-.02 ^{ab}	-.43 ^b	.37 ^{bc}	.33 ^b	.29 ^{ab}	-.21 ^b
	핑크	38,39	-.53 ^b	-.20 ^c	-.01 ^a	.01 ^{ab}	-.67 ^c	-.89 ^c	-.14 ^b	.07 ^a	-.21 ^d	.05 ^{bc}	-.38 ^{cd}	-.20 ^b
	주 황	36,36	.16 ^a	.24 ^b	-.39 ^b	-.46 ^b	-.51 ^{bc}	-.45 ^b	-.72 ^c	-.72 ^b	.95 ^a	.98 ^a	.46 ^a	.37 ^a
	빨 강	35,35	-.44 ^b	-.49 ^c	-.40 ^b	-.09 ^{ab}	.66 ^a	.30 ^a	.21 ^{ab}	.09 ^a	.47 ^b	.21 ^{bc}	-.60 ^d	-.51 ^b
미디엄 브라운	33,35	.15 ^a	-.48 ^c	.24 ^a	-.14 ^b	-.26 ^{bc}	-.89 ^c	.39 ^a	-.50 ^b	.01 ^{cd}	-.57 ^d	.45 ^a	-.26 ^b	

*p<.05, **p<.01 a, b, c, d : Duncan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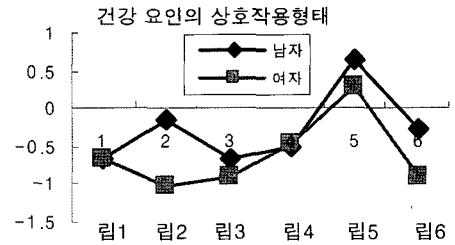
그리고 남자는 그레이쉬퍼플과 미디엄브라운도 싫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두운 피부톤의 친숙성, 지성에서 그레이쉬퍼플, 호감도 요인에서 빨강, 젊음 요인에서 주황색이 다른 입술색보다 더 친숙하고, 지성적이며, 호감있게 평가되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성별과 입술색의 상호작용효과는 친숙성, 건강, 호감도, 지성에서 나타났고,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4>-<그림 7>과 같다. 친숙성 요인에서 그레이쉬 퍼플과 핑크, 그리고 미디엄브라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남자들은 미디엄브라운을 비교적 친숙하게 지각한 반면, 여자들은 친숙하지 않게 평가하였다(그림 4). 이러한 결과를 밝은 피부톤의 친숙성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형태와 비교하면, 남녀 모두 피부톤에 따라 립3의 핑크색 입술에 대한 이미지지각 차이를 크게 보였으며, 남자들은 어두운 피부톤의 빨강색 입술을 밝은 피부톤에서의 그것보다 더 친숙하지 않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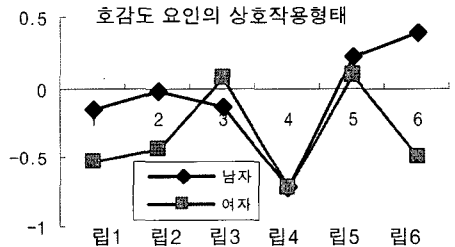
따라서 친숙성 요인에서 특히 핑크색 입술의 이미지는 피부톤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의 건강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형태에서 그레이쉬퍼플에 대한 남녀간의 지각차가 가장 컸으며, 남자 집단에 비하여 여자 집단에서 그레이쉬퍼플 입술색을 더 건강하지 않게 평가하였다. <그림 6>의 호감도 요인에서 성별간 이미지지각 차이는 미디엄 브라운에서 가장 컸는데, 어두운 피부톤의 미디엄브라운 입술색은 남성들에게 가장 호감있게 지각된 반면 여자들의 호감도는 비교적 낮았다. 새면핑크와 그레이쉬퍼플, 핑크, 빨강에서도 차가 있었으나 주황에서는 차가 없었다. 남자들은 어두운 피부톤의 핑크색 입술을 새면핑크, 그레이쉬퍼플보다 더 호감도가 낮게 평가하였으나, 여자들은 이들 두 가지 입술색보다 핑크를 더 호감있다고 하여, 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밝은 피부톤의 호감도요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와 비교하면, 립4 주황에 대한 지각차가 피부톤에 따라 크게 나타났으며, 빨강도 차이가 있었다. <그림 7>의 젊음 요인에서 그레이쉬퍼플, 미디엄브라운이 다른 입술색에 비하여 차이가 커, 남자들은 미디엄브라운을 가장 젊게 지각하였으나, 여자들은 비교적 젊지 않게 평가하였다. 어두운피부톤의 입술색에 대한 상호작용효과에서 미디엄 브라운 입술은 친숙성, 호감도, 젊음 요인에서 남녀간 지각차가 컸는데, 이는 밝은 피부톤에서의 친숙성과 호감도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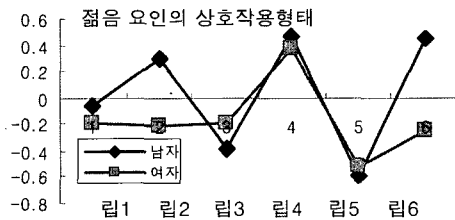
<그림 4> 친숙성의 지각 차이



<그림 5> 건강 요인의 지각 차이



<그림 6> 호감도 요인의 지각 차이



<그림 7> 젊음 요인의 지각 차이

인에 대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피부톤에 따른 이미지메이크업의 이미지평가

이미지메이크업을 위한 피부톤은 입술색에서의 두 가지 피부톤과 동일하며, 적용된 각 이미지메이크업 색은 <표 1>에서 제시되었으며, 배색기준 또한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측정도구에서 언급하였다. 입술색 이미지지각과 선호도 평가를 위한 자극물에 사용되었

던 새면핑크, 그레이쉬퍼플, 핑크, 주황, 빨강색 입술은 이미지메이크업의 로맨틱, 엘레강스, 쿨, 내추럴, 클래식 의 입술색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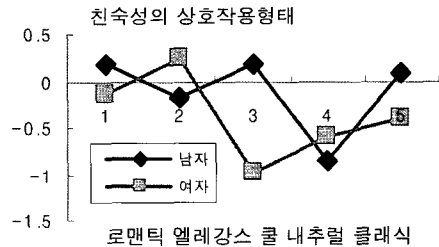
(1) 밝은 피부톤에서의 이미지메이크업 이미지평가

밝은 피부톤에서의 이미지메이크업과 성별에 따른 이미지지각의 상호작용효과 파악을 위한 이원변량분석과 성별에 따른 요인별 이미지메이크업의 평균값을 산출, 그리고 이미지메이크업과 각 요인에 대한 남녀별 이미지지각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한 Duncan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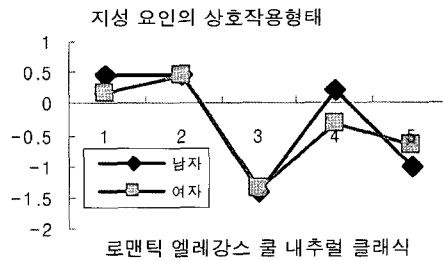
주 효과는 성별의 친숙성, 호감도 요인에서, 이미지 메이크업은 6개 요인 모두 유의한 차가 있었다. 성별 평균에서 남자는 전통성 요인을 제외한 5개의 요인에서 여자보다 그 값이 높아 같은 자극물에 대하여 남자가 더 친숙하고 지성적이며, 건강하고, 호감도가 높으며, 짧게 평가하였다. 성별과 이미지메이크업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호감도 요인을 제외한 5개의 요인에서 있었다. <표 6>에서 밝은 피부톤과 메이크업에 대한 요인별 지각 차이에서, 로맨틱, 엘레강스는 젊음 요인에서 성별간 차이가 있었으며, 쿨 메이크업은 친숙성에서 남녀간 지각차가 컸다. 내추럴은 남자들에게 지성적이며, 전통적으로, 여자들에게 호감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클래식은 남녀 모두에게 가장 짧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자극물에 대하여 각 요인과 지각자 성별에 따른 지각차가

있었으며, 특히 내추럴 메이크업은 성별에 따른 요인별 지각차가 비교적 컸다. <그림 8>-<그림 12>는 성별과 밝은 피부톤의 이미지메이크업에서 나타난 5개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형태이다.

친숙성 요인에서 쿨과 클래식에서 남녀간의 지각차이가 컸으며, 로맨틱과 엘레강스도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밝은 피부톤에서 로맨틱, 쿨, 클래식을 대체로 친



<그림 8> 친숙성의 지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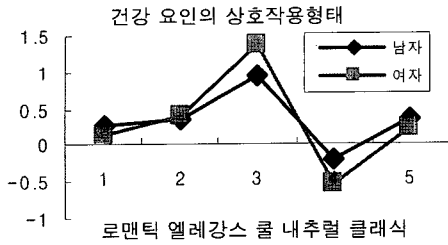


<그림 9> 지성 요인의 지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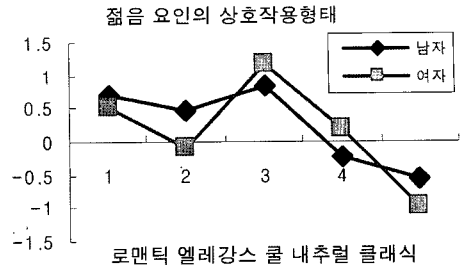
<표 6> 성별 및 밝은 피부톤에 따른 이미지메이크업의 이미지평가

주 효과	성 별(A) 메이크업(B)	df	친숙성		지성		건강		호감도		전통성		젊음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주 효과	성 별(A)	1	7.717**	1.004	.111	7.824**	1.598	.776						
	메이크업(B)	4	10.898**	84.243**	37.173**	6.099**	45.372**	37.547**						
2원 상호작용효과	A×B	4	9.852**	3.821**	2.772*	1.992	3.381*	3.824**						
변 인		N	M		M		M		M		M		M	
성 별	남 자	166	-11		-26		.35		.43		-20		.24	
	여 자	165	-34		-32		.34		.16		-05		.13	
메이크업		N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로맨틱	36,29	.19 ^a	-.15 ^{ab}	.48 ^a	.15 ^a	.29 ^b	.13 ^b	.53 ^{ab}	.41 ^a	-.33 ^b	-.15 ^b	.69 ^a	.53 ^b
	엘레강스	31,40	-.18 ^a	.25 ^a	.45 ^a	.47 ^a	.37 ^b	.40 ^b	.03 ^c	-.20 ^b	.09 ^a	.77 ^a	.47 ^a	-.09 ^c
	쿨	33,32	.18 ^a	-.97 ^c	-1.42 ^c	-1.36 ^c	.94 ^a	1.39 ^a	.81 ^a	.09 ^{ab}	-1.19 ^c	-1.32 ^c	.83 ^a	1.15 ^a
	내추럴	32,30	-.87 ^b	-.61 ^{bc}	.21 ^a	-.32 ^b	-.18 ^c	-.52 ^c	.26 ^{bc}	.28 ^a	.36 ^a	.08 ^b	-.25 ^b	.17 ^{bc}
클래식	34,34	.08 ^a	-.39 ^b	-1.02 ^b	-.68 ^b	.34 ^b	.23 ^b	.49 ^{ab}	.31 ^a	.10 ^a	.16 ^b	-.58 ^b	-.97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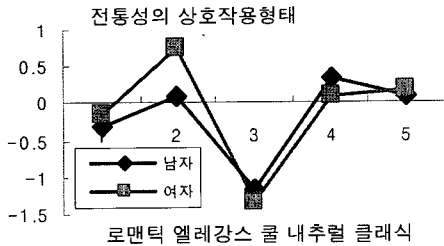
**p<.01 a, b, c, d : Duncan 검정



<그림 10> 건강 요인의 지각 차이



<그림 12> 젊음 요인의 지각 차이



<그림 11> 전통성의 지각 차이

숙하게 평가한 반면, 여자는 엘레강스를 가장 친숙하다고 하여, 친숙성에서의 남녀간의 지각 차이가 다른 요인에 비하여 컸다(그림 8). 지성 요인에서 내추럴에 대한 성별간 차이가 있었다(그림 9). <그림 10>에서 쿨 메이크업은 가장 건강하게 지각되었으며, 특히 여자가 더 건강하게 평가하였다. 가장 건강하지 않게 지각된 내추럴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건강하지 않게 평

가되었다. 전통성 요인의 엘레강스에서 성별 지각차가 컸으며, 특히 여자 집단에서 더 전통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그림 11). 젊음 요인에서 성별간의 지각 차이가 다소 있었으나, 남녀 모두 쿨을 가장 젊게, 클래식을 가장 젊지 않게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2) 어두운 피부톤에서의 이미지메이크업 이미지 평가

어두운 피부톤에서의 메이크업과 성별에 따른 이미지평가 결과는 <표 7>과 같다.

주 효과는 성별의 호감도 요인에서, 이미지메이크업은 6개 요인 모두 유의한 차가 있었다. 성별 평균에서 남자는 지성 요인을 제외한 5개의 요인에서 여자보다 그 값이 높아 같은 자극물에 대하여 남자가 더 친숙하고, 건강하며, 호감가며, 전통적이며, 젊게 평가 하였다. 성별과 이미지메이크업에 대한 상호작용

<표 7> 성별 및 어두운 피부톤에 따른 이미지메이크업의 이미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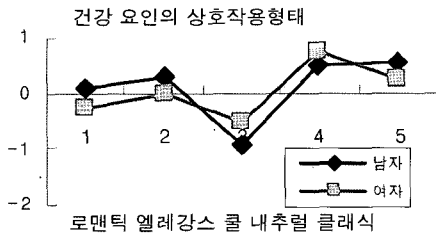
주 효과	성 별(A)	df	친숙성		지성		건강		호감도		전통성		젊음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F값				
주 효과	성 별(A)	1	.593	.363	.537	15.142**	.332	2.030						
	메이크업(B)	4	26.503**	30.708**	25.462**	14.536**	18.234**	26.428**						
2원 상호작용효과	A×B	4	1.575	1.745	3.200*	4.249**	3.311*	2.282						
변 인			N	M	M	M	M	M	M	M	M	M	M	
성 별	남 자	161		-0.11	-0.11	.10	.38	.29	.00					
	여 자	172		-0.17	-0.08	.04	-0.02	.25	-0.15					
메이크업		N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로맨틱	32,34	-.60 ^b	-.81 ^b	.23 ^a	.30 ^a	.09 ^a	-.25 ^{cd}	-.33 ^c	-.19 ^{bc}	.25 ^b	.00 ^{bc}	.68 ^a	.42 ^a
	엘레강스	31,34	.30 ^a	.43 ^a	.40 ^a	.38 ^a	.31 ^a	-.02 ^{bc}	.25 ^b	-.53 ^c	.49 ^b	.34 ^{ab}	.08 ^b	-.35 ^b
	쿨	33,34	-.58 ^b	-.92 ^b	-.36 ^b	-.63 ^b	-.92 ^b	-.52 ^d	1.12 ^a	.39 ^a	-.52 ^c	-.27 ^c	.69 ^a	.24 ^a
	내추럴	33,32	.05 ^a	.34 ^a	.13 ^a	.66 ^a	.50 ^a	.75 ^a	-.09 ^{bc}	.03 ^{ab}	.27 ^b	.66 ^a	-.59 ^c	-.46 ^b
	클래식	32,38	.31 ^a	.09 ^a	-.94 ^c	-.94 ^b	.54 ^a	.24 ^b	.93 ^a	.18 ^{ab}	.98 ^a	.50 ^a	-.84 ^c	-.57 ^b

**p<.01, a, b, c, d : Duncan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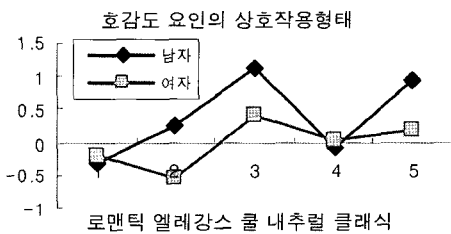
효과는 건강, 호감도, 전통성 요인에서 있었다.

<표 6>의 어두운 피부톤과 메이크업에 대한 요인별 평가에서, 로맨틱은 남녀 모두에게 지성적이고 젊은 이미지로, 남자에게 건강하게 평가되었다. 엘레강스는 남녀 모두 친숙하고 지성적으로, 남자에게 건강하게, 여자에게 전통적으로 지각되었다. 쿨은 남녀 모두에게 호감을 주고, 젊게 지각되었으며, 내추럴은 성별에 상관없이 친숙하고, 지성적이며, 건강하고, 호감있게 지각되었으며, 특히 여자 집단에게 호감있고, 건강하게 평가되어졌다. 클래식은 친숙하고 독특하며, 전통적으로, 그리고 남자에게 건강하게 지각되어졌다. 성별과 어두운 피부톤의 이미지메이크업에서 나타난 건강, 호감도, 전통성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13>부터 <그림 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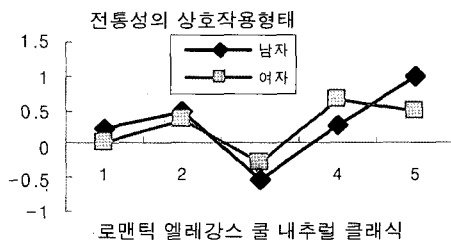
<그림 13> 건강 요인에서 내추럴과 클래식이 건강하게, 쿨이 남녀 모두에게 가장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밝은 피부톤의 결과와 상반된



<그림 13> 건강 요인의 지각 차이



<그림 14> 호감도 요인의 지각 차이



<그림 15> 전통성의 지각 차이

다. 호감도 요인의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 <그림 14>에서, 엘레강스, 쿨, 클래식은 성별 간 지각차가 있어, 남자는 쿨과 클래식을 호감있게, 로맨틱을 가장 호감없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여자들은 쿨을 가장 호감있고, 엘레강스를 가장 호감도가 낮은 화장이라고 하였다. 젊음 요인에서 남자들은 클래식, 여자들은 내추럴을 가장 젊게 지각하였고, 쿨 메이크업은 남녀 모두에게 가장 젊지 않게 평가되었는데<그림 15>, 이는 밝은 피부톤에서 남녀 모두 쿨을 가장 젊게, 클래식을 가장 젊지 않게 지각한 결과와 차이가 있다.

4. 지각자의 성별 및 동일 피부톤의 입술색과 이미지메이크업의 평가 차이

입술색에서 미디엄브라운을 제외한 5개의 입술색이 이미지메이크업에 적용되어졌으므로, 같은 피부톤에서 입술색과 이미지 메이크업의 성별 평가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는 동일한 얼굴에 입술화장만 한 경우와 그 입술색이 다른 색의 눈화장, 볼화장 등과 배색되어졌을 때의 이미지 평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 남자의 화장색 평가 차이

두 가지 피부톤에서 각 요인별 입술색과 이미지메이크업에 대한 남자들의 평가결과는 <그림 16>-<그림 19>이며, 그림을 통하여 동일한 피부톤에서 입술색만 적용시켰을 때와 이들 각 입술색을 다른색과 배색시켰을 때 이미지지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은 밝은 피부톤에서 입술화장만 하였을 때, 대부분의 요인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핑크 입술과 쿨 화장은 지성요인에서 그 차를 크게 보인 결과, 핑크는 입술화장만 하였을 때는 비교적 지성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다른 색의 눈, 볼 화장과 배색되어졌을 때는 가장 지성적이지 않게 지각되었다. 반면에 빨강 입술은 배색되어졌을 때, 더 젊게 보임으로써, 화장색 이미지는 단색과 배색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남자들에게 화장한 20대 여성 얼굴은 밝은 피부톤에서 동일한 입술색을 다른색과 배색하였을 때보다 입술화장만 하였을 때 좀 더 친숙하고, 건강하며, 호감있는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어두운 피부톤에서는 입술화장만 하였을 때보다 전체 화장을 하였을 때 좀 더 지성적이고, 건강하며,

호감있고, 전통적이며 젊게 지각되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피부톤에서는 핑크 입술-쿨 메이크업에 대한 지각차이가 다른 화장색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지성 요인의 핑크색과 빨강색 입술은 이미지메이크업에서 다른색과 배색되었을 때 더 지성적이지 않게 평가된 반면, 지성적이지 않게 보인 그레이쉬퍼플은 이미지메이크업에서 비교적 지성적으로 평가되어 단색과 배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호감도 주요인에서 남자들은 핑크와 그레이쉬퍼플의 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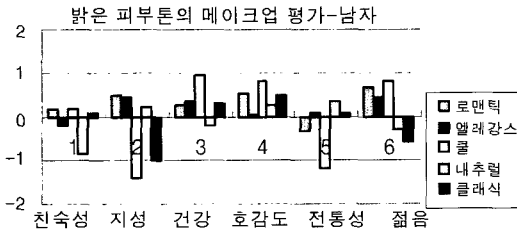
지 입술색이 각각 다른 색과 배색되어졌을 때 더 호감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밝은 피부톤일 때, 그리고 입술화장만 하였을 때 각 요인에 따른 화장색 평가 차이가 좀 더 뚜렷하며, 이는 대인지각이론의 두드러진 단서가 여성의 얼굴화장에서도 지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밝은 피부톤에서는 입술화장에 대하여, 어두운 피부톤에서는 이미지메이크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요인에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여자의 화장색 평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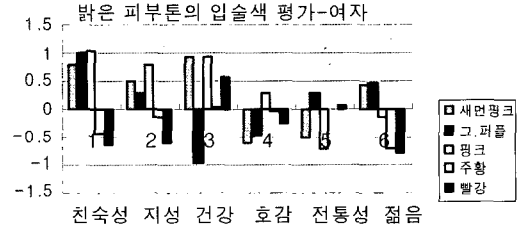
두 가지 피부톤에서 각 요인별 입술색과 이미지메이크업에 대한 여자들의 평가결과는 <그림 20>-<그림 23>이다. 전체적으로 단색과 배색화장에 대한 지각차이가 있었으나, 남자에 비하여 다소 그 차이가 적었다. 그러나 밝은 피부톤에서 친숙성의 새먼핑크-로맨틱, 핑크-쿨, 지성의 핑크-쿨, 건강의 그레이쉬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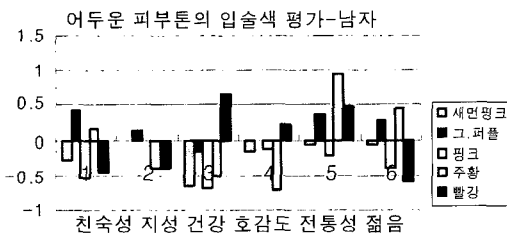
<그림 16> 밝은 톤의 요인별 입술색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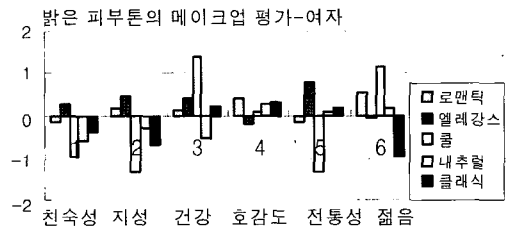
<그림 17> 밝은 톤의 요인별 메이크업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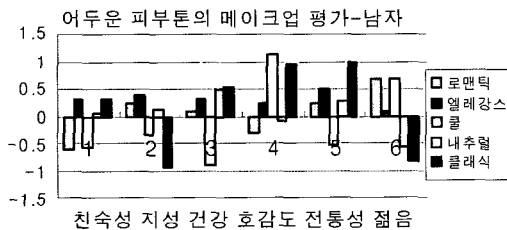
<그림 20> 밝은 톤의 요인별 입술색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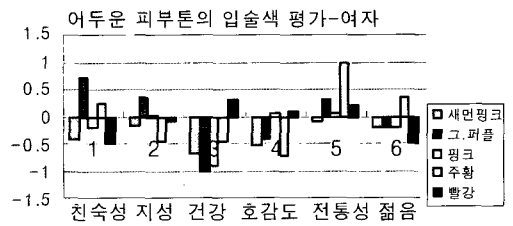
<그림 18> 어두운 톤의 요인별 입술색 차이



<그림 21> 밝은 톤의 요인별 메이크업 차이



<그림 19> 어두운 톤의 요인별 메이크업 차이



<그림 22> 어두운 톤의 요인별 입술색 차이



<그림 23> 어두운 톤의 요인별 메이크업 차이

엘레강스, 호감도 요인의 새면핑크-로맨틱, 젊음의 그레이쉬퍼플-엘레강스, 핑크-쿨 등에서 단색과 배색에 대한 지각차를 남자보다 더 크게 보였다.

어두운 피부톤에서 여자들은 지성, 건강, 호감도 요인의 주황-내추럴, 젊음 요인의 핑크-쿨, 주황-내추럴에서 단색과 배색간의 지각차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 결과 어두운 피부톤의 주황색 입술은 지성적이지도 건강하지도 않으며, 호감도가 낮았던 반면 가장 젊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주황색 입술이 다른 화장색과 배색되어졌을 때는 가장 건강하고 비교적 지성적이고 호감이 가지만, 대체로 젊지 않게 평가 되었다. 또한 핑크-쿨, 그레이쉬퍼플-엘레강스에 대한 지각차도 보이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단색과 배색에 대하여 남자에 비하여 좀 더 큰 지각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성별간의 화장색 이미지지각 차이에 대한 이와 같

은 결과는 Hamid(1972), Graham and Jouhar(1981)의 연구와는 상반되나 이연희(2001)의 결과와는 유사한데, 이는 문화권, 조사시기 등의 영향 또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외국인으로 확대시켜 한국인과 특정 외국인간의 화장색 지각차이를 고찰하는 것도 의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는 <표 8>과 같다. 입술색은 밝은 피부톤의 빨강과 어두운 피부톤의 미디엄브라운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는 밝은 피부톤의 빨강색 입술을 남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남자는 어두운 피부톤의 미디엄브라운을 여자보다 더 선호하였다. 이미지 메이크업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밝은 피부톤의 쿨과 클래식에서, 어두운 피부톤에서는 로맨틱, 쿨, 클래식을 여자보다 더 좋아하였다. 22가지의 자극물 중, 16개의 자극물에서 남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 화장한 여자의 동일한 얼굴사진에 대하여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좋아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선호도에서 특히 연한 톤의 화장색은 중간 톤 또는 강한 톤의 화장색에 비하여 피부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그레이쉬퍼플과 엘레

<표 8> 사진번호별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

		선호도															
		밝은 피부톤							어두운 피부톤								
		남			여				t	p	남			여			
M	SD	N	M	SD	N	M	SD	N			M	SD	N				
입술색	새면핑크	3.52	.67	33	3.59	.71	32	-.459	.648	2.61	.84	36	2.57	.74	35	.211	.833
	그.퍼	3.03	1.05	33	2.68	.81	34	1.554	.125	3.42	.83	33	3.31	.72	35	.585	.561
	핑크	3.43	.85	35	3.08	1.01	37	1.574	.120	2.66	.85	38	2.62	.78	39	.229	.820
	주황	2.69	.75	36	2.82	.97	34	-.626	.533	2.47	1.08	36	2.67	1.10	36	-.758	.451
	빨강	1.97	.93	30	2.53	.94	30	-2.354	.022*	2.57	.78	35	2.34	.97	35	1.089	.280
	미.브	3.11	.83	38	2.79	.93	33	1.521	.133	3.06	1.00	33	2.35	.86	37	3.199	.002**
이미지 메이크업	로맨틱	3.50	.94	36	3.21	.98	29	1.227	.224	2.97	1.03	32	2.32	.81	34	2.841	.006**
	엘레강스	3.10	.83	31	3.25	1.01	40	-.685	.495	3.29	.94	31	2.94	.95	34	1.488	.142
	쿨	3.39	.86	33	2.81	1.09	32	2.387	.020*	2.79	1.02	33	2.15	.99	34	2.607	.011*
	내추럴	2.13	.87	32	2.50	.68	30	-1.879	.065	2.64	.90	33	3.06	.91	32	-1.900	.062
	클래식	2.82	.90	34	2.15	.61	34	3.619	.001**	3.00	.72	32	2.39	.86	38	3.169	.002**

*p<.05, **p<.01

강스 화장배색과 같은 라이트 톤 중심의 화장색은 피부톤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화장한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새면핑크와 핑크 입술색, 로맨틱과 쿨 이미지 메이크업은 밝은 피부톤에서 선호 정도가 높았으며, 그레이쉬퍼플은 어두운 피부톤에서, 엘레강스 화장배색은 피부톤에 상관없이 비교적 선호되었다. 미디엄 브라운색 입술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선호되었으며, 밝은 피부톤에서의 선호정도가 좀 더 높았다. 주황, 빨강 입술색은 선호정도가 낮았으며, 이들 입술색이 어두운 피부톤에서 다른색과 배색된 내추럴에서는 여자, 클래식에서는 남자에게 3.0 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주황, 빨강 등의 비교적 짙은 입술색은 단색보다는 배색되어졌을 때, 그리고 어두운 피부톤에서 선호정도가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과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색 이미지지가 요인분석 결과, 친숙성, 지성, 건강, 호감도, 전통성, 젊음 등의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모델의 피부톤에 따른 입술색과 이미지 메이크업 평가에서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 입술색에서 새면핑크는 친숙성, 그레이쉬퍼플은 친숙성, 건강, 호감도, 젊음 요인, 미디엄 브라운은 친숙성, 호감도, 젊음 요인 등에서 남녀간 지각차가 비교적 컸다. 이미지메이크업에서 특히 밝은피부톤의 엘레강스는 전통성과 젊음, 쿨은 친숙성과 건강, 내추럴은 지성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지각 차이가 컸으며, 어두운 피부톤에서는 두 집단간 지각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호감도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좀 더 큰 지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선호도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입술색은 밝은 피부톤의 빨강과 어두운 피부톤의 미디엄브라운에서, 이미지메이크업은 밝은 피부톤의 쿨과 클래식, 어두운 피부톤의 로맨틱, 쿨, 클래식에서 남녀간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화장한 얼굴을 더 선호하였다. 넷째, 동일한 입술색이 입술에 단색으로 적용되었을 때와 다른색의 눈과 볼화장 색과 배색되었을 때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특히 핑크 입술-쿨 메이크업, 그레이쉬퍼플 입술-엘레강스 메이크업에 대한 평가 차

이가 다른 화장색보다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자의 성별은 화장한 20대 여성 얼굴이미지 평가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이므로 대인관계에서 각 상황에 따른 화장색 선택기준에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둘째, 피부톤은 입술색과 전체 화장배색에 영향을 주므로 개인의 피부톤과 연출하고자하는 얼굴이미지에 따라 화장색 선택의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선호도에서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화장한 얼굴을 더 좋아하고, 자극물에 따른 선호도 또한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결과를 화장행동 시 고려한다면 사회적 인상형성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의 제한점은 사진에 자극물과 실제 얼굴에 대한 이미지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과 지각대상자가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의도표집된 집단이므로 평가결과를 한국인의 일반적인 색채감성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물모델과 지각대상자를 일반화시킴으로써, 한국인의 보편적인 화장색 이미지 평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지각자의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화장색 평가를 고찰한 <제2보>의 결과와 함께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 도구로 제작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대학 메이크업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주)동아출판사. (1994). *동아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이연희. (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양은. (1981).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홍대식. (1998). *사회심리학*. 서울: 청암미디어.
 大坊郁夫. (1996).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ップ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10, 11-16.
 石田香里. (1995). 現象學的化粧論 「おしやれの哲學」. 東京: 理想社.
 柯田隆博, 遠藤光男, 阿部恒之, 高野 ルリ子. (1996). 顔の魅力ほす化粧と表情の効果, *Fragrance Journal* 10, 91-100.
 鈴木恒男. (1996). 肌色とメイクアップ. *Fragrance Journal* 10, 48-54.

- 春山行夫. (1992). *化粧*. 東京: 平凡社.
- Brain, R. (1979). *The decorated body*. New York: Harper & Row.
-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2001). HarperCollins Glasgow: Publishers.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Inc.
- Fujii, D. (1991).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 Graham, J. A., & Jouhar, A. J. (1981).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77-101.
-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London: Thames & Hudson.
- Hamid, P. (1972). Some effects of dress cues on observational accuracy: A perceptual estimate,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6, 279-289.
- Hastorf, A. H., Schneider, D. J., & Polefka, J. (1970). *Person perception*. CA: Addison-Wesley Pub. Co.
- Hayes-Steinert, J. (1978). *Your skin after 30*. N.Y.: A & W Pub. Inc.
- Jackson, C. (1984). *Color me beautiful*. N.Y.: Ballentine Books.
- Jouhar, A. J., & Graham, J. A. (1985). Psychological studies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 McArthur, L. Z., & Ginsberg, E. (1981). Casual attribution to salient stimuli: An investigation of visual fixation mediators. *Personalty and Social Psychology Bulltein*, 7, 547-553.
- McArthur, L. Z., & Post, D. L. (1977). Psychology figural emphasis and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520-535.
- Spillane, M., & Sherlock, C. (1995).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 N.Y.: Madison Books.